

•월주스님 총무원장 후보사퇴 그 이후 선거방법등 갈등불씨 여전

19일 발표된 월주스님의 후보사퇴는 선거 과정의 뇌관이었던 '3선공방'을 잠 재웠다. 이제 종단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이란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월주스님이 출마를 포기한 이상 남은 일은 적법한 절차를 통한 새로운 '선거관'을 짜고 그로인한 합법적인 제29대 총무원장 체제가 출범하는 일.

원로회의나 정화회의 중앙총회등

정화회의-선거법등 개정 추진 중앙총회-대형승려대회 준비

은 빠른 시일내에 종단을 안정시키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통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원론에는 한결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방법에서는 차이가 있어 아직 남아 할 산이 많은 현실을 대변해 준다. 정화회의는 150여명이 참여하는 정화회의의 상임위원회를 통해 총무원장 선거법을 비롯한 각종 중법을 손질한 후 개정된 법에 따라 선거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화회의는 이날 내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앙총회는 20일 봉은사 회의에서 27일 오후2시 조계사에서 종헌중법 수호를 위한 승려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총회는 소위원회를 구성하는등 승려대회를 준비하면서 정화회의와 '정사반환, 선거법개정' 등을 골자로 하는 대화를 벌여나가기로 했다.

교구본사 주지연합회도 23일 오후 회의를 가질 예정이어서 중앙총회의 승려대회에 얼마나 힘을 실어줄 것인지 주목된다.

중앙총회가 개최하는 승려대회와 이미 승려대회를 통해 새로운 체제를 구성한 정화회의의 향후 대립할 것인지 발전적인 관계를 구축하며 종단의 안정 기조를 위해 한 목소리를 함께 낼 것인가가 종단 사태 해결의 가장 큰 쟁점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중앙총회와 원로회의, 정화회의의, 교구본사 주지연합회, 기존의 후보진영 등이 '선거관'에 대한 미련 보다 '종단 안정'이라는 대의를 앞세우며 서로 양보와 보완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게 불자 대다수의 주문이다.

임연태 기자

서로 정법 주장... 점점 어디에

조계종 사태

원로회의 중회해산등 결의(14일)

●... 조계종 중정 월하스님이 소집한 원로회의가 14일 구룡사에서 열려 의장 해암스님의 불신임을 의결하고 중앙총회 해산요청서를 원하 중정스님에게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이 회의에는 월하 중정스님과 원담, 응담, 청하, 비룡, 벽암, 도경, 정영 스님등 7명의 원로위원이 직접 참가하고 일타, 도원, 운경, 지중, 석주, 성수, 정현, 종산스님등 8명이 위임 및 동의를 보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원로회의는 의장 해암스님의 불신임 결의에 따라 벽암스님을 새 의장에 원담스님과 정영스님을 부의장에 각각 추대했다.

원로회의는 11일 전국승려대회와 결의문을 추진하고 종화해산 요청서를 중정 월하스님에게 제출했다. 월하스님은 원로회의가 결의한 직후 중회 해산을 승인했다.

또 원로회의는 18일 선거의 원천무효, 제2정화불사 추진, 청정승가화합 등에 대한 결의도 함께 했다. 원로회의는 또 종헌 제 5장 24조, 종단비상시 중정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종헌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 직후 원로회의의 사무처장 효림스님은 공식 사임의사를 밝혔다.

해암스님 '구룡사회의 무효'(14일)

●... 구룡사 원로회의의 직후 원로회의의 의장 해암스님은 서울 봉의동 대각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구룡사에서 회동한 몇몇 원로위원 스님들의 모임은 간단회에 불과하며 종헌·종법상 효력이 없는 정식 원로회의가 아니다"고 밝혔다.

법등, 청하, 명진스님 등 총회의장단이 배석한 기자회견에서 해암스님은 △구룡사에는 원로위원 7명만 참석하였으며, 나머지 8명은 위임장으로 대체하였기에 원천무효 △정화개혁회의는 종헌·종법의 체제를 무너뜨렸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 △조계종 사일내에 원로회의의 공식입장을 밝혔으니 중도들은 동요함이 없이 종헌·종법 질서를 수호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해암스님은 구룡사에서 효림스님이 사무처장직을 사임한데 따라 영배스님(총회사무처장)을 원로회의의 사무처장에 임명했다. 총회의장 법등스님도 이날 성명을 통해 "구룡사 원로위원 모임은 원로회의로 간주하지 않는다"며 "해암스님을 위시한 원로회의를 중심으로 종단을 안정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화회의, 본사주지 회의 열어(16일)

●... 정화개혁회의가 소집한 교구본사 주지회의가 12개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16일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정화개혁회의측의 지원스님과 성문스님은 회의가 끝난 후 "오늘 회의에 참석한 주지스님들은 중정스님의 교시를 받들어 종단사태를 수습하는 데 적극 동참키

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화회의의 부·국장 임명(16일)

●... 정화개혁회의(상임위원장 월타)는 16일 오전 집행부 부장급 명단을 발표했다. 상임위원장 월타스님은 18일 오전 상임위원장 월타스님 명의의 임명장을 수여했다.

△포교위원장 지원 △총무원장 현소, 국장 보연 △기획실 감사국장 선법 △재무부장 인행, 국장 각원 △문화부장 진욱, 국장 정인 △사회부장 최지원, 국장 해도 △효법부장 원화, 효법국장 정관, 정보국장 성호 △홍보실장 부동, 차장 지거, 동출 △상임위원장 사서실장 동성, 차장 송출, 수행사서 법기 △정화개혁회의의 사무처장 중훈 △교무원 불학연구소장 효중 △중정재정실장 영하.

19일 총무원청사 또 충돌(19일)

●... 조계종 총무원 청사 접수를 두고 19일 새벽 또 한번의 물리적 충돌 사태가 발생했다.

19일 새벽 5시 5분경 10여명의 스님과 100여명의 사설 경비업체 직원들이 총무원 청사 진입을 시도하는 가운데 정화개혁회의 소속 스님들과 심한 몸싸움을 벌였다. 방패와 방망이 절단기 등을 이용해 청사로 진입하려는 측과 분말소화기 분말과 물을 뿌리며 지지하는 측의 공방이 30여분간 계속되는 가운데 7명의 스님과 용역업체 직원 1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임시총무원 고용 배치

●... 정화개혁회의(상임위원장 월타)의 집행부 부·국장 임명장 수여식 이후 업무에 본격 착수했으나, 재가총무원들의 업무 미비로 정정적인 총무원청사 11일 이후 9일째(19일 현재)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화회의는 빠른 총무원청 정정화를 위해 임시직원 10여명을 이날 고용해 각 부서에 1~2명씩 배치했다. 정화회의는 총무원과 재무부 업무를 우선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조계사 앞 제주은행 건물 3층에 임시 사무실을 낸 총무원측도 기본적인 민원 이외의 업무를 시행할 수 없어 종단 업무 공백에 따른 우려가 높다.

감사국장 중수스님 폭행(19일)

●... 19일 저녁 6시50분경 조계종 감사국장 중수스님 소속에 정화개혁회의 소속 스님과 재가불자등 6명이 무단 침입, 집단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중수스님에 따르면, 이들은 무작정 방으로 들어와 폭행을 가했다는 것. 중수스님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6명중 2명은 19일 밤 경찰에 연행됐다.

정화회의의 상대 법적대응(13일)

●... 조계종 총무원은 13일 건조물 집



◇ 14일 구룡사에서 열린 원로회의는 의장불신임을 의결하고 중정스님에게 중회해산을 요청키로 했다.



◇ 14일 해암스님은 대각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구룡사 원로회의는 원천무효라고 밝혔다.



◇ 19일 새벽 5시15분 1백여 용역업체 직원과 10여명의 월주스님측 스님들이 총무원청사 진입을 시도했으나 40여명만에 되돌아 갔다.

가, 파손, 폭력,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을 내용으로 월타, 정우, 성문스님을 서울 지검에 고발했다. 총무원은 고발장을 접수하며 청사침입과 관련 즉각 퇴거 조치를 시행해 줄 것도 요청했다.

또 14일에는 건조물 점거에 대한 퇴거가처분 신청 및 정화개혁회의의 권한무효, 손해배상 청구 소송등을 서울 지방법원에 제출했다.

22개 종단대표 성명서 발표(20일)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22개 종단 대표들이 조계종 사태의 조속한 종식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태고종 천태종을 비롯한 종단 대표들은 20일 종단협의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조계종 사태의 장기화를 우려하며 성명을 채택했다.

종단 대표들은 성명에서 △폭력 재발 방지 △사태의 조기 수습과 화합을 가로막아갈 것 △조계종은 거대종단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여타 종단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 등을 촉구했다.

재가단체 잇단 성명서 발표

●... 전국불교공동연합 등 9개 재가불교단체는 17일 서울 종로구 육화관에서 조계종 사태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재가단체들은 성명서에서 "승가적 위의를 갖추지 못한 스님들에 대한 공양과 청법, 예함을 하지 않은 운동들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국스카우트불교지도자회는 19일 최근 종단 상황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승가는 종헌 다름의 현장을 떠나 수행자의 사교를 보여주어 수습방안의 단초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불교청년회는 14일 '조계종단의 분규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중정스님의 교시를 통행하고 수행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다.

특별취재팀 (ytlm@buddhapia.com)

목어

스님들께 ③

기다림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만약 희망이 없다면 포기하겠죠. 불자들은 조계종이 빨리 안정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 희망을 저버리지 말아야겠고, 불자들이 국민들이 조계종에 실망하는 날이면 그때는 돌아선 불심을 되돌리기가 쉽지 않을겁니다.

"살마"하며 믿지 않으셨지만 이미 짙게 가지 않았다고 신언한 신도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불교가 어디 조계종 뿐입니까. 한국의 종교가 어디 불교 뿐입니까.

월주스님이 임기 하루를 남기고 총무원장 후보를 사퇴했습니다. 거론하고 싶지 않은 '3선공방'의 쟁점이 해소

이제 문제를 쉽게 푸셔야겠습니다. 3선반대를 위해 중정교시도 나왔고, 승려대회도 열렸고, 정화개혁회의도 발족했습니다. 그 과정에 생긴 불미스러운 일들을 사과 한 후, 한국불교의 참모습을 보이기 위해 조계종은 한국소리로 한걸음 가야만 합니다.

원로회의, 중앙총회, 정화개혁회의는 화합하여 하루속히 새 총무원장을 뽑는데 지혜를 모아 주십시오. 집단의 이익을 계산하거나 개인의 자존심 챙기려 든다면 일을 또 그러칩니다.

짧은 시일에 여법한 선거를 치루

어 21세기를 열 새 총무원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다른 종교는 21세기를 준비하느라 바쁩니다. 불교계에서도 2천년대 계획을 짜고있는 종단이 있습니다.

금년도 한달남짓 남았습니다. 얼른 정상화하여 98년을 마무리하고 99년 예산도 세우고 2천년 맞이도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편 가르지 마세요. 내편 내편이 어디있습니까. 총무원들도 다 제 자리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속히 승적업무도 보고, 포교사교시도 제 날짜에 치뤄지길 바랍니다.

마음을 비워주세요. 그게 달처럼 쉽지 않지만 스님들이시

기 때문에 쉬우수도 있습니다. 비운 마음으로 서로 합장하고 악수하고 실추된 종단의 명예를 회복해 주십시오.

만약 월주스님이 증명하는 금산사 10선운종, 월타스님이 조성한 법주사 미륵대불, 지선스님이 연 무차대회의 뜻이 퇴색하면 한국불교 조계종도 퇴색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교단의 분열을 화합시키면 해탈문을 여는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님들께서 다 함께 해탈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중앙승가대학교 '99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본교는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법 제 67조에 의해 종단에서 운영하는 종합대학으로서 대한불교 조계종 「기본교육기관」입니다.

〈청시모집 "나"군〉 신입학생 모집요강

■모집학과 및 정원

계열	학 과	일반전형 (60%)	특별 전형		비 고
			정원내 40% (대교육신)	정원의외 (재가국민등)	
인문	불교학과	18	12	1	
	역경학과	18	12		
사회	포교사회학과	18	12	1	
	사회복지학과	18	12		
합계		72	48명	2명	122명

* 특차모집 합격자 및 청시모집 동일학군 타 대학 지원자는 지원 할 수 없습니다

■응시자격 및 전형방법

■특별전형

◇ 지원자격 : 조계종 승려로서 고등학교 졸업자 및 '99년 2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조계종 교육원에서 인정하는 강연 대교과(4년) 졸업(예정)자

◇ 전형방법 : 입학정원의 40%내에서 서류전형 및 면접(인성)고사로만 우선 선발함.

■일반전형

◇ 지원자격

· 조계종 승려로서 고등학교 졸업자 및 '99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위의 학력을 갖춘 타종단 승려도 추천에 의해 인정범위내에서 선발합니다.

◇ 전형방법

· 입학정원의 60%내에서 다음의 방법으로 선발함.

고교내신성적	필기(교리)고사	면접(인성)고사	합 계
40%(400점)	40%(400점)	20%(200점)	100%(1,000점)

■원서 교부 및 접수

◇ 장 소 : 본교 교학처
◇ 교부기간 : 98.12.14(월) ~ 99. 1. 11(월)
◇ 접수기간 : 99. 1. 5(화) ~ 99. 1. 11(월)

■제출서류

- 1)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1부
① 출석 및 종교활동 성적 기록과 작성 교직원 서명, 날인 후 테이프 부착
- 2) 고교졸업(예정)증명서 1부
* 대입검정고시 합격자 : 합격증사본과 성적증명서 각 1부
- 3) 고교 생활기록부 사본 1부 : '99년 졸업예정자는 제외
- 4) 성적증명서 1부 (총무원 발급 - 최초 수개월 기록)
* 타종단 승려는 해당 총무원에서 발급
- 5) 강연 대교과 졸업(예정)증명서 1부 * 특별전형 지원자
- 6) 주민등록 등본 1부
- 7) 칼라사진(오조가사 수한 반명함판 3x4cm) 5매 제출(3매 원서부착 2매 별도)

■입학원서대 및 전형료

1) 원서대 및 시모집 : 3,000원
2) 전형료 : 60,000원

■전형일정

- ◇ 예비소집(특별·일반전형) : '99.1.14(목) 09:00~09:40
- ◇ 필기(교리)고사(일반전형) : '99.1.14(목) 10:00~11:10
- ◇ 면접(인성)고사(일반·특별)전형 : '99.1.14(목) 13:00~17:00
- * 수험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비소집부터 시험 면접을 하루에 마칩니다.

편입생모집요강

■모집학과 및 인원

계열구분	학 년	전산코드	학 과	모집인원
인문· 사회계열	제2학년 (일반편입)	12	불교학과	2
		22	역경학과	19
	제3학년 (일반편입)	32	포교사회학과	13
		42	사회복지학과	2
제3학년 (학사편입)	13	불교학과	00명	
	43	사회복지학과	00명	
	14	불교학과	0명	
	44	사회복지학과	0명	

* 3학년 일반편입은 재입학 희망자 파악후 인원확정

■지원자격

- 제2학년: 대한불교 조계종 승남 2년이상 승려로서 대학 1년이상 수료자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제3학년: 대한불교 조계종 승남 3년이상 승려로서 대학 2년이상 수료자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학사편입: 학사학위 소지 및 예정자로서 조계종 승남 3년 이상인 승려

■전형방법과 일정등은 신입학 전형과 같음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처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법인 승가학원 중앙승가대학교

136-075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5가 156

☎ (02)925-5507(교 202-5)